

落角을 기다리며

李 廷 祿
聞慶松園시습묵장

입춘을 지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겨울 날씨다. 눈덮인 산등성이를 지나온 바람이 썰— 하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갈 때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추려든다.

눈이 내리기 요몇일 전에는 하늘이 포근히 풀리면서 따사로운 햇살이 아름답으로 쏟아져 내려 금방이라도 들판에선 아지랑이가 곰실곰실 피어 오를 것만 같았다. 그랬던것이 입춘을 하루 앞두고 눈과 함께 동장군이 느닷없이 심통을 부리기 시작하더니만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조금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우수 경칩을 지나기 전에는 언제 또 동장군의 심술이 터져나올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지금쯤 봄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어서 겨울을 떨쳐버리고 봄을 맞이하고 싶다.

지난 가을엔 건조도 넉넉하게 준비하였고 혹독한 추위가 없어서 비교적 푸근한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봄을 맞이하고픈 마음은 아마도 낙각이 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일 것이다.

지난해 첫뿔을 자른 엘크 숫놈 한마리가 절각 타임이 맞지 않아서인지 결가지가 돌아나와 피터팬에 나오는 꿀두기 선장의 갈고리 팔처럼 휘어진 것이 딱딱하게 굳은 후로는 이만저만 말썽이 아니다. 뿔이 굳기 전에 잘라버릴까도 했으나 마취를 시키고 어찌고 해야 할 터이니 한창 발육을 해야 할 사슴이라 생육에 지장을 줄까봐 그냥 두기로 했는데 이토록 말썽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갈고리 뿔이 철망 사이로 들어갈때는 쉽게 들어가서 나올 때는 능형 철망에 걸려서 좀체 빠지지 않는다. 잘 나오지 않는 뿔을 힘겹게 빼내느라고 그때마다 철망을 우구르트리려 놓았다.

한번은 걸린 뿔이 빠지지 않아 허둥대

는 것이 안스럽기도하고 철망이 망가지는 것이 아까워 도와 주려고 가까이 갔다가 그만 사슴이 화들짝 놀라 있는 힘을 다하여 뿔을 철망에서 빼내어 가는통에 다이야몬드 형으로 굽혀진 8번선 철사가 일자로 쭉펴지는 난리를 겪었다. 그후론 아예 근접을 삼가고 도리어 멀리 피해주었다. 한두번 골탕을 먹었으면은 철망 가까이에서 장난질을 그만 두었으면 좋으련만 금방 잊어버리는지 아니면 재미를 붙여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하루에도 몇차례씩 철망 사이에 뿔이 걸려서 킁킁거린다.

지난 여름, 10여년이 넘게 사용했던 낡은 철망을 걷어내고 철망과 지주를 새것으로 설치를 했는데 한해 겨울도 넘기지 못하고 망가트려 놓은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속상하다. 처음 몇번은 우그러진 철망을 뺨지로 원형에 가깝도록 손질도 해봤으나 날이 갈수록 더 망가만 지는 통에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갈고리 뿔로부터 철망을 보호하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러모로 궁리를 해 봤지만 좋은 방법이란 있을 수가 없었다. 낙각이 되기를 기다리는 밖에는.....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마음은 언

제고 부풀게 마련이다. 낙각 진 자리에선 탐스런 여린 뿔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오를 것이고 산에만 가면 지천으로 돌아온 싱그러운 햇풀을 사슴에게 마냥 줄 수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올해 봄은 그토록 밝지만은 못할 것 같다. 다름아닌 생사슴 수입이라는 시한 폭탄이 그때를 그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여온 사슴이 과연 어떤 과문을 물고 올 것인가?

사슴 수입에 따른 우려를 기존 양육인들의 기득권 보호 차원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참으로 속 모르는 소리다.

사슴을 수입하겠다는 사람이 이땅에 양육을 정착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우수종을 들여와 지금 양육업계가 안고 있는 모든 고충도 함께 풀어가고자 결연한 자세로 임한다면 큰 우려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도태되기 직전의 저질 사슴을 마구 잡이로 들여와 한몫 잡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수입한 사슴을 분양 받은 사람이 망하건 어찌건 그것은 수입업자와는 무관한 일이고 싫건 좋건 기존 양육업계가 그 짐을 대신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수입한 사슴

을 입식한 옹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처를 수입한 사람에게 내린다고 한다면 그래도 사슴을 수입 하겠는가?

아무튼 봄과 더불어 사슴은 들여오게 될 것이고 아무리 싫어도 우리는 그 짐을 대신 져야 하는 운명에 놓여있다. 이제와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서 무엇하랴. 어렵고 힘겨운 때 일수록 우리모두 지혜를 모아 어려운 고비를 넘길 일만 남았다.

이런저런 의미에서 나는 기회있을 때마다 협회의 가입을 또는 협회의 활성화를 권유해 보고 있다. 그럴때면 어김없이 「양록협회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는 반문을 받게 된다. 참으로 곤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저 유명한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베풀까 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명언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게 마련이다. 씨를 뿌리고 금방 돌아서서 열매를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순리에 어긋난다.

협회의 구성 요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회원이다. 구성 요소인 회원들의 노력으로 협회의 모든 기능은 창출되는 것이다.

아무리 성급하더라도 대학교에 입학하려간 학생이 대뜸 학위증 교부부터 원한다면 어찌되겠는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면학을 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협회에 가입 하는 것은 협회를 잘 가꾸어 협회의 모든 기능을 활짝 꽃피우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바야흐로 봄이 열리려 하고 있다. 양록협회의 새봄이 열기 위하여 우리모두 비장한 각오로 나서봄이 어떠할까! ☆